

컬러레이, 상반기 매출액 268억 원 달성

- ▶ 계절적 비수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도 상반기 실적 선방
- ▶ 하반기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절' 타깃 매출 개선 기대

<2021-08-31> 중국의 화장품용 펄 전문 생산기업 컬러레이홀딩스(900310, 대표이사 쥘중비아오)가 2021년 상반기 매출액 268억 원, 영업이익 135억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99%, 2.68% 감소한 수치다.

진주광택안료 부문의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상반기 매출액과 동일한 217억 원으로 계절적 비수기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해외 고객사의 안정적 매출이 뒷받침되어 양호한 실적을 견인하였다.

향후 컬러레이는 신공장에서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제품 등을 시장에 공급하며 지속적인 매출 향상에 힘을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신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생산효율성이 증대돼 원가절감 및 우수한 품질의 진주광택안료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하반기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P&G(중국)와의 협업을 통해 진주광택안료 공급망을 확대하고 대량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컬러레이는 상반기 신공장을 구축하며 진주광택안료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끌어올렸으며 스마트 제어 운영 플랫폼을 도입하여 기존 생산 라인 대비 생산효율성이 20%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광택안료 부문의 호실적에 비해 유통사업 부문 매출액은 작년대비 다소 감소한 51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대비 개별 판매단가가 낮은 제품군이 주력으로 판매되어 매출 상승 측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다.

컬러레이 관계자는 "알리바바 티몰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전문 직영몰에 입점하여 현재 티몰과 전략적인 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절'을 겨냥해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몰, 징둥닷컴, 핀뉘뉘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 유통사업 부문 매출액을 끌어올리고 실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추후 화장품 소비 시장 회복세에 따라 진주광택안료 매출은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며 "유통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마케팅과 제품 품목, 규모, 공급 플랫폼을 확대해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